

# 주거문화와지역성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윤기병

공간적 제약이 많은 수도권과 비교하여 지방에서의 주거환경이 지방의 특성에 대한 발굴의 문제와 함께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수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지역에서의 바람직한 주거를 만들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시장경제에 대한 존중, 사회적 변화의 수용과 리드, 그리고 주거 모델의 제시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 시장경제의 존중

우리나라에서 오늘과 같이 아파트가 주된 주거의 형태로 자리잡게 된 것에는 주택 보급률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적극 권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아파트가 산업 사회에서 고급 주거의 이미지를 시장에 심어 줌으로써 오늘날의 전국적 고밀도화된 주거형태로 자리잡게 되었다.

우리가 '지속 가능한' 주거의 개념을 지방에서의 주된 주거의 형태로 자리잡게 하기 위하여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이미지와 결부하여 시장을 설득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즉, 바람직한 방향으로 주거 시장이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람직한 주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예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가 있습니다. 객관적 지표로 바람직한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로, 바람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아가는 지표를 제시하여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인구의 밀집으로 인한 제한된 공간에서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나, 지방의 경우 공간적 여유로움을 바탕으로 한 친환경적 주거의 개발을 적극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사회적 변화 수용과 리드

주거는 사회적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하고 수용하는 형태로 구체화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적 변화의 주된 변화로서 주목하여야 할 흐름은 탈 산업사회와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입니다. 특히 지방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사회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지방에서의 주거의 형태로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주거의 모색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도권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반면, 지방에서는 자연적이며 환경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사회에서 주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는 자연과 가까이 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건강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간적 여유로부터 육체적 건강과 그리고 삶에 있어서의 안정된 정서의 개념으로 지방에서의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회의 정보화에 따라 지방에서의 문화적 불이익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의 제시가 지역의 특성과 결부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지방의 주거 모델 제시

지역적 특성을 살린 주거의 형태를 갖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좁은 공간의 수도권에서의 삶의 형태를 지방에서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방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의 박탈이자 경쟁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점을 스스로가 포기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넓은 공간을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장점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 센터에서의 운동이 아닌 산과 호수를 즐기며 운동을 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공 공간, 그리고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것 등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모델의 제시를 필요로 합니다. 지방에서 좁은 공간의 삶은 공간이 좁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짐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의 것을 만드는 초석으로 삼는 노력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IMF의 경제 위기를 겪으며 경제 운용의 방향을 결정하는 열쇠를 쥐고 있는 회사들을 보았습니다. 무디스와 같은 회사는 국가와 회사에 대한 신용도를 측정함으로써 시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직한 주거의 형태를 적극 권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격려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의 마련과 함께 공신력을 심어 줄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